

| 예 배 | 일 시 | 장 소 |
|--------|--------------|--------|
| 주일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예배당 |
| 어린이 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교육관 |
| 청년 모듬 | 주일 오후 3시 30분 | 교육관 |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시 | 음대 강의실 |
| 한민 말씀방 | 매일 | 단체 카톡방 |

주일 예배 봉사위원

| | 05. 03 | 05. 10 | 05. 17 |
|---------|--------|--------|--------|
| 대 표 기 도 | 이상호 목사 | 정환영 형제 | 최상우 형제 |
| 성 경 봉 독 | 김정규 형제 | 정환영 형제 | 최상우 형제 |

교회소식

4월의 축복 인사 :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브레멘지역 청년연합 찬양집회 - 5월 14일(목) 오후 2시 한민교회에서 모입니다.
4. 성찬예식 - 다음 주일은 성찬예식으로 예배드립니다(기도로 준비합니다)
5. 담임목사 동정 - 교단 선교회의에 참석합니다(4월28~30일, 프라하)
6.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 생일 | |
|----|--|
| | |

지난주통계

| | |
|-----------|--|
| 주일헌금 | |
| 주일학교 | |
| 감사헌금 | |
| | |
| | |
| 합계(Euro) | |
| 온라인헌금(4월) |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 | |
|---------------------------------|---|---------------|
| *찬 양 Gemeindelied | ----- | Liebevoll 찬양팀 |
| *송 영 Chor | ----- | 반주자 |
| *기 원 Altargebet | -----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420장 | 다같이 |
| 기 도 Gebet | ----- | 이상호 목사 |
| 성경봉독 Predigttext | 벧전 1 : 13-17(신p377) (1.Petrus 1:13~17) | 이상호 목사 |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 헌금기도 Kollektgebet | ----- | 이상호 목사 |
| 설 교 Predigt |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 |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 ----- | 이상호 목사 |
| * 송 영 Chor | ----- | 반주자 |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학, 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을 권면하며, 그 근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제시합니다.

1.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3-14절)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무절제와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15-16, 21절)

거룩한 삶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방종으로 흐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감사와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이것이 선한 영향력의 근거가 됩니다.

3. 나눔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22절)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얻은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나눔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그때 선한 영향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랑과 나눔은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서든지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현실적으로 나눔과 선한 영향력을 가로 막는 것은 무엇인가?
2.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